

지역 메아리

김제 용지면, 우수마늘기업 최우수상

김제시 용지면 황토영농조합법인(대표 이철용)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7년 우수마늘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마늘기업 인증서와 사업개발비 7천만원을 받게 됐다.

김제시(시장 이진식)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남 김해시 김해 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마늘기업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7개의 우수 마늘기업이 참석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용지면 황토영농조합법인 군고구마 말랭이 등 황토 농산물 생산 및 판매로 지역 소득을 창출해왔고 사업성과 및 지역 사회 공헌활동상을 담은 ppt 발표,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공공성 및 기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연간 상근인력 3명 비상근인력 25여명 가량을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목회자들과 간담회

김제시 성덕면(면장 심형순)은 30일 복지허브화 성공역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하여 성덕면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이 지역사회의 복지허브기관이 되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지원과 민간자원이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허브화의 주요 대상은 복지욕구가 미결된 복지 소외계층으로 탈 수급대상, 차상위 대상,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이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이며 이들에게는 가구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생계·주거 등 긴급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안내를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화산면, 어르신 생신잔치 열어

완주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순, 장치혁)가 어르신 생신잔치를 열었다.

30일 화산면은 생일을 맞은 지역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생일을 맞은 어르신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평소 먹고 싶은 음식 등을 선정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다.

행사에서는 위원들의 재능기부로 수지침과 축하노래공연과 어르신들의 선물을 마련, 풍성한 생일상을 마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알리기 '구슬땀'

국제종자박람회 관광 홍보관 운영... 관광지도·리플릿 등 적극 홍보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밑거름이 될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3일간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며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제시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박람회는 '씨앗, 내일을 품다(Seed For Our Future)'를 슬로건으로 해외바이어와 국내종자산업 관계자들에게 우수 품종을 선보여 종자 수출

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김제시 홍보관에서는 관광지도와 리플릿, 기념품 등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며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김제시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어통역 안내원이 함께 참여하여 해외바이어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관광안내해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벽골제 등 관내 유명 관광지 외에도 '2017년 전북방문의 해'와 '전북투어패스' 홍보에도 매진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또한 최근 성령리에 마련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 사진 전시회도 함께 마련하여 축제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축제의 분위기와 열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양운업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수출의 교두보 역할뿐 아니라 김제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지평선 김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상공인협, 소상공인 주간 이벤트 마련

11월 5일까지 공동세일 행사 등 진행

(사)김제시소상공인협회(회장 한광운)는 최근 전통시장 입구에서 소상공인 주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골목상권을 애용할 것을 호소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소상공인 주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1월 5일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전국 소상공인들이 한마음으로 일주일간 펼치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축제이다.

우리 경제의 싹싹줄로 우리 경제 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일구는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국민 여러 분께 다가가는 '소상공인 주간'은 전국의 주요도시와 기초자치체를 망라하여 전국 동시다발로 10월 30일 시작해 11월 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주간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 주도



(사)김제시소상공인협회는 최근 전통시장 입구에서 소상공인 주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골목상권을 애용할 것을 호소했다.

로 치러지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풀뿌리 소상공인 조직이 하나 되는 명실상부한 소상공인들의 대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소상공인 주간 동안 전북의 많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김제지역에서는 150여개 소상공인 회원업체가 공동 세일 행사와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

트를 준비하고 손님 맞을 체비에 나섰다. 또한 오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는 김제초등학교 강당에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생한 유공 소상공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치매인지훈련·찾아가는 노래교실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홀) 26개소를 선정하여 입소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지훈련 및 우울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노래교실은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인우울 및 치매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노래 전문 강사(외부강사) 초빙하여 함께 따라 부르기, 이야기 나누기 등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훈련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이다.

찾아가는 노래교실에서 부르는 노래는 원전좋아따들, 보야 같은 친구,

몰지마세요, 소꿉같은 인생, 인동역에서, 시계바늘, 백세인생 등 손뼉 치며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치매인지훈련 및 치매 예방 노래교실은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인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치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고산면 지역활성화 분야 '장려상'

전국지방자치박람회 3년 연속 수상... 우수사례 부스 운영

완주 고산면이 전국지방자치박람회 지역활성화 분야 장려상을 수상,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30일 고산면에 따르면 주민자치회(회장 김병호)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에서 지역활성화분야 우수 사례에 선정, 우수사례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산면은 이번 박람회에서 '열린 마을으로 화합과 공유의 공동체'를 만든 마을사람들, 자매결연 후 지속적 상호교류와 협력증대로 상호원인'이라는 주제로 지역활성화분야에 응모했고 도내에서 유

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병수 고산면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주민자치의 모범사례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005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출발, 현재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5년 박람회부터 3년 연속 지역활성화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봉동읍 읍면 화합 한마당 '호응'

완주군 봉동읍이 읍면 화합 한마당을 개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30일 봉동읍은 지난 28일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어르신, 기관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동읍민 화합 한마당 및 어르신 공경 큰 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봉동읍과 봉동읍사회기관단체 공동 주관으로 공연, 음식나눔 행사, 후원금 모금 등으로 이뤄졌다. 식전행사로 봉동연합농약단, 초청가수, 색소폰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봉동 지역 출신인 남상일 명창의 특별

공연으로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각 사회기관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으로 수육, 봉어빵, 빈대떡, 호박식혜 등을 직접 준비해 함께 나눴다. 또한 당일 후원금 모금함을 설치, 모금된 후원금과 행사 잔액을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